

식품 안전부터 음식문화까지... 2025년 식품 행정 '5관왕'

나주시, 식약처와 전남도 평가서 식품 안전·급식·음식문화 등 5개 분야 기관 표창

전라남도 나주시가 식품 안전 관리 강화와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한 해 동안 식품 안전, 급식, 음식문화 등 5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받으며 우수한 식품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라남도청이 주관한 각종 평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총 5개 부문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품안전관리', '식품안전관리 평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 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전라남도청이 주관한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공중위생 업무 평가'에서도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식중독 예방 역량 강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 안전관리 내실화, 건전한 음식문화 확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식품 행정 전반에서 나주시의 정책 추진 성과가 크게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나주시는 식품 제조, 유통, 판매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접객업소와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위생 점검을 강화해 왔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현장 중심의 개선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하며 실질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끌어냈다.

특히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하절기와 지역 축제 기간에는 다중이용시설과 집단



급식소를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과 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했으며 민관 합동 식중독 예방 모의훈련과 종사자 위생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나주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

관한 '제7회 어린이·사회복지 급식 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전남 지역 센터 최초 수상 사례로 공공 급식 안전관리 강화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주/이명열 기자

완도군,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 가동 '한발 빠른 대응으로 주민 안전 챙긴다'

완도군은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중심의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범우 부군수를 주제로 「2025년 겨울철 대책·한파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어 부서별 추진 상황과 중점 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아울러 ▲선제적 재난·재해 예방 ▲취약계층 지원 강화 ▲농·수·축산업 재해 예방 ▲생활 안전 관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추진 상황과 분야별 대응 전략으로 먼저 공공 건설 현장 25개소를 점검하고, 폭설·한파 시 상황 전파, 재난 모니터링, 긴급 복지 지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상황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했다.

적설 시 도로 제설에 대비하여 제설 장비와 재설제를 사전에 120% 이

상 확보했다.

한파로 주민 보호 및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강화했다.

전남 최초로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스마트 통합 쉼터'를 설치했으며, 한파 쉼터 77개소에 온열 매트와 담요 등을 배부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 관리, 난방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여 주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파에 필요한 방한 용품 꾸러미를 배부할 계획이다.

고지대와 수압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동파 예방 조치를 취하고, 상수도 급수 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농·수·축산업 분야에서는 농·수·축산물 피해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요인 점검 관리, 관계 기관 합동 점검 등 현장 중심의 대응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완도/장성우 기자

전남 곡성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소득작목으로 만감류를 육성하기 위해 재배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14일, 고품질 만감류 후반기 관리요령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 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을 추진한 데 이어, 12월 22일에는 수확기를 앞두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실

곡성군, 만감류 재배 전 과정 맞춤형 컨설팅 강화

시했다. 이번 12월 컨설팅은 감귤 마이스터를 초청해 진행했다. 오전에는 옥과농협 본점에서 관내 만감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이론 강의가 열렸으며, 옥과 지역의 기온·강우 특성을 반영한 온도 관리와 물 관리, 토양 및 시비 관리, 병해충 관리 등

기본 재배기술을 비롯해 천혜향·레드향 재배관리 요령과 10월 이후 만감류 생육 후반기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오후에는 관내 7개 재배 농가를 순회하며 과원 여건과 생육 상태에 맞춘 현장 컨설팅을 추진했다. 특히 수확을 앞둔 시점

에 맞춰 과실 착색 상태와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수확기에 맞는 물 관리와 환경 관리 등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지도에 집중했다.

현장 컨설팅 결과, 현재 생육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레드향은 1월 초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천혜향 수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곡성/이정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장성군, 청년농업인 영농 고민 해결

장성군이 최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청년농업인과 현장지원단 간담회'를 열었다.

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농업기술 △농산물 판로 확보 방법 △유통 전략 등 영농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영농 고민을 해결해 주는 즉석 상담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를 마친 현장지원단은 오는 30일까지 청년농가를 직접 방문해 영농 현황을 점검하고, 경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구례군,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 및 간담회 개최

구례군은 지난 12월 17일, 2026년도 모범음식점 30개소(신규 3, 재지정 27)를 선정하여 지정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 신청 업소 중 현지조사와 음식문화 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생수준 및 서비스가 우수하며 좋은 식단을 실천하고 있는 음식점을 지정하였다.

영업주들은 구례를 대표하는 모범음식점으로 친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손님을 맞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구례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2026년 축제 및 전담체 등 음식점을 찾아오는 손님맞이를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하였다.

구례/한정호 기자



감방산선 후배모임, 동탄면에 이웃사랑 후원금 기탁

무안군 동탄면(면장 최정숙)은 지난 12월 19일 감방산선후배모임으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감방산선후배모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동탄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감방산선후배모임은 선·후배 간의 친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박한수 감방산선후배모임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